

“전라도, 독립군 운영자금 모금 주도”

김재기 전남대 교수,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분석 광주·화순·담양 중심 40여명 참여 5억 상당 추산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 운영 재정에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비밀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도민 40여명이 현재 가치로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십시일반 모은 것이 상세하게 기록돼 당시 독립운동에 전라도민들이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하루 앞두고 10일 공개한 조선총독부 비밀자료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자금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모금됐다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다. 16쪽 분량의 이 비밀문서는 3·1운동 이듬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작성, 일본 외무성에 보고됐다.

‘전남에서 임시정부 조선독립군 자금 모집원 검거’는 제목의 비밀보고서로 복간도 신희무관학교 한문교사 신덕영이 최양욱 등과 함께 광주 3·1운동 주도자 이윤호·노석정 등이 비밀리에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했다고 보고돼 있다. 2개조로 나뉘어 광주·화순·곡성·보성·담양 등지에서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했다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조선독립대동단 단원들이 일제 관료

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농림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조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도에서는 40여명이 참여했고 8,000원 정도 모금됐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밀보고서에 등장한 전라도 사람들은 조명석·조하능·노석중·김정연(이

상광주), 정인병·양사형·양재국·손동채·손여애(이상 화순), 윤영기(효천), 박문용(보성), 최면식(면암 최익현 손자) 등으로 참가자들의 실명이나 열매 있고, 모금액도 100원에서 1,000원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져 내각 총리와 장관, 척식국장, 경찰국장, 검사국장, 관동장관 관동군사령관, 조선군사령관, 조선헌병대장, 진해항사령부, 각 법원장관과 검사장, 상해·길림·연해주 총영사관 등과 정보가 공유됐다.

김재기 교수는 “당시 독립운동자금

을 내다 잡히면 모진 고문과 중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낸 기록이나 장부가 거의 없다보니 발각되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모금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라도는 임시정부의 ‘비밀금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찾은 이 자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단초”라고 평가했다.

/김종찬 기자



경로당 돌며 소통행정 10일 오전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이 관내 금호타운경로당, 풍성경로당, 이화부녀경로당 등을 방문 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경로당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을 펼쳤다. /동구청 제공

초당대 3개 학과 폐지...학생들 반발 “대학 유지 구조개혁” vs “신입생 모집 사기”

초당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 개혁 등을 위해 학과폐지를 결정하면서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초당대학교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학과 구조개혁 차원에서 검도학과와 경찰행정학과·사회체육학과 등 3개과를 폐지키로 했다.

대학 측은 내년부터 이들 3개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지만 재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졸업때까지 학사일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총장과의 면담 등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최근 신입생 추가모집까지 진행했던 대학 측이 갑자기 학과폐지를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한 학생은 “폐지학과가 지난 2월 말까지 신입생 추가모집을 진행했다”면서 “학과폐지 사실을 모른채 입학한 신입생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고 항변했다.

초당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대학이 유지되기 위한 결정이다”며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자유한국당, 4대강 복원정책 방해말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축산보서 규탄 기자회견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자유한국당에 대해 4대강 복원정책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나주 영산강 축산보를 찾은 10일 축산보에서 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4대강 사업은 타당성·환경성·경제성 등에서 근거를 얻지 못했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 사업 이후에도 혈세낭비·수질악화 등 후유증이 잇따랐다”며 “4대강 사업의 책임자인 한국당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보 해체를 반대하며 영산강을 다시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불필요한 농업용 댐 증고 사업, 축산보 등 보 건설로 혈세를 낭비시키고 정작 농민을 위한 대책은 뒷전이었던 이들이 보 해체 때문에 생활·농업용수가 부족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적폐 당사자들이 적폐를 바로잡는 정책이 두려워 뭍부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보 해체 추진과정에서 시설보장 등 농업용수 사용을 우려하는 농민의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 중인 데도 한국당은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4대강 복원정책을 방해하지 말고 지역상생 방해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영산강 내 축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오는 6월 1일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통해 축산보의 해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광주 예술중·고 신축공사 연내 착공한다

다목적 공연장 변수...건립비 160억 추가 필요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예술고 이전사업이 다목적 공연장 건립비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로 광주 예술중·고 신축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40년 가까이 된 광주예술고는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로 이전한다.

중·고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예술인재들의 연계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설과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807억원으로 이 가운데 346억원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약 3만7,000㎡를

매입하는데 투입됐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시설규모 축소와 중·고 통합, 지자체 투자를 받은 다목적 공연장 건립 등 3가지 조건부로 승인됐다. 지자체 투자 사안인 다목적 공연장 건립에는 추가로 160억원이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5대 문화권 가운데 하나인 시각미디어 문화권으로 지정된 중외공원 일대에 학교가 들어서는 만큼 관련 사업비가 공연장

에 투입되기를 시교육청은 기대했다.

현재 미디어 문화권에서는 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을 들여 청소년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사업을 다목적 공연장 건립과 연계할지, 사업비로 공연장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 한다고 해도 정부와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며 “중·고교 시설과 공연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도대체 왜 연락이 안되는거야?”

○·최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 40대가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서행.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송 모씨(42)는 전남 밤 11시 10분께 서구 쌍촌동 박 모씨(34·여)의 집에 벽돌을 던져 1층 바깥쪽 창문을 깨트린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송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집을 찾았다고 한다”며 “아무리 연락이 안되도 그렇지 둘을 던져 창문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던 전 여친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짝 사라질 것”이라고 혀를 깔았다. /김종찬 기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